

‘금호타이어 사태’ 春鬪 신호탄 되나

(춘투)

노조 오늘 쟁의대책위서 9일 부분파업·규탄집회 등 논의 민노총 내일 대책위...금속노조 노동 이슈 경쟁 투쟁 예고

광주지역 노동계가 심상치않다. 금호타이어 해고 매각 문제가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우려하는 노동계의 전략적 이슈로 등장하면서다. 금호타이어 사태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지역 노동계가 3월 ‘춘투’(春鬪)로 돌입하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는 채권단의 해외매각 추진과 관련,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파업과 대정부 투쟁, 해외매각 반대 10만명 서명운동, 청와대 앞 촛불집회, 산업은행 규탄집회, 시민

대상 홍보 활동 등 구체적 일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노조는 또 9일에는 부분파업(4시간)을 벌여 해외 매각을 막기 위한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5일(春鬪)로 돌입하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노조는 이미 채권단의 중국 타이어기업인 더블스타와의 해외 매각 협상에 반발, 공공 농성에 돌입한 상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해외매각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채권단의 더블스타와 협상이 ‘대안’이라는 발표도 “채권단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광주시민의 고용, 지역경제 혼란은 고만하지 않는 결과”라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도 금호타이어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측은 오는 7일 노동대책위원회, 시민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금호타이어 문제와 관련된 투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노동대책위원회에는 금호타이어지회뿐 아니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금호타이어 해고 매각을 비롯, 일자리와 고용 문제로 우려되는 지역 경제,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폐지 등 민감한 노동 이슈와 맞물려 향후 정부를 상대로 한 경쟁 투쟁도 점쳐진다.

광주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민대책위원회의 활동 방향도 노동계 투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역 노동계 안팎에서는 금호타이어 채권단의 채무 상환 유예 결정 시기(26일)를 전후로 경쟁 모드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지난 28일 채권단 실무책임자 회의를 열고 채무 상환 유예 결정을 한 달 늦추기로 했었다.

채권단은 지난 26일까지 금호타이어 노사 합의로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1조3000억 원의 차입금 만기 1년 연장과 이자율 인하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75.06 (-27.10)	↑ 금리 (국고채 3년) 2.31% (+0.02)
↓ 코스닥 845.00 (-15.23)	↑ 환율 (USD) 1082.00원 (+1.70)

“비정규직 3214명 정규직 전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2주년 브리핑...“농사도우미 로봇 도입”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5일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취임 2주년 브리핑을 열고 “올해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미래형 스마트매장과 인공지능(AI) 기반 농사도우미 챗봇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선 “전체 비정규직 5200여명 중 3214명을 올해 점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상반기 중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조산업 등에 투자했던 부분이 부실로 이어져 2016년 6월말 1357억 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하지만 같은 해 12월말 흑자로 전환, 지난해는 523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김 회장은 “은행, 증권 등에서 영업이 잘돼 흑자 전환했다”며 “올해 농민들에게 3.5% 상당의 잉여금 배당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지난해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농가당 185만원씩 총 1조9743억원의 소득 기여 성과를 낸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300억원 증



가한 2조5052억원의 소득 기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김 회장은 “2020년까지 농가 소득 50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농업인이 재고를 받을 수 있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형 스마트매장 도입, AI 기반 농사도우미 챗봇, 블록체인 고객 인증시스템 도입 등 신기술과 연계한 사업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여기에 해외진출도 본격화한다.

김 회장은 “중국 최대 농업 협동조합인 ‘중화전국공소합작총사’와 합작을 통해 농협금융의 중국 진출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베트남, 인도 등에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한편, 농업바이오 등 경제사업 타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국세청 “납세의무 준수합시다” 모범납세자 표창·성실납세문화 조성행사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은향)은 5일 오전 ‘제52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모범납세자, 지역 경제단체장, 국세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실납세문화 조성 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플린트컴포지트코리아(주)가 동탑산업훈장, (주)화인모텍과 백진환경 합자회사가 산업포장, (주)서광과 (주)성전건설이 대통령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또 국무총리 표창 1명,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13명, 국세청장 표창 17명,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 20명, 세무서장 표창 29명 등 총 85명이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수상일로부터 세무조사 유예와 민원봉사실 모범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및 증명 발급, 대출금리 경감, 금융신용평가 우대 등 다양한 사회적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이와함께 광주지방국세청은 성실한 납



광주지방국세청은 5일 오전 광주지방합동청사 강당에서 이은향 청장을 비롯한 지역 경제단체장과 모범납세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세무관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공모전과 청소년 세금교실(연중) 운영, 세금문예작품 입상작

상설 전시장 등의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이은향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감사를 받는 성실납세 문화

를 조성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 ‘자녀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제’ 시행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정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부모 10시 출근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자녀에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자녀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한다. 대상 직원들은 오전 10시로 출근시간이 순연 실시되고, 근로시간은 단축되지만 그로인해 임금 및 승진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조계준 인사지원부장은 “육아는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가 앞장서고 기업·사회에서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의 이번 정책에 적극 동참하게 됐다”며 “이와 같은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일·가정에서 진정한 워라벨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상의 회장 선출의원·특별위원 117명 등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뽑는데 참여할 의원과 특별위원으로 117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의는 5일 제 23대 상의회장 선출권한이 있는 일반의원과 특별위원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80명을 뽑는 일반의원의 경우 99명이 등록했고 특별위원(정원 10명)에는 18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차기 광주상의 회장 선거는 오는 20일 열린다. /김지율기자 dok2000@

원과 특별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제 22대 상의회장 선거의 경우 일반의원(정원 70명)은 112명이, 특별의원(정원 10명)은 15명이 후보로 등록한 바 있다.

광주상의는 또 임시의원총회를 통해 ‘특별회비’ 제도를 신설, 오는 23일부터 의원들의 해외산업 시찰 등에 활용키로 했다.

기아차 정규직 연계형 인턴사원 모집

대학 졸업자까지 범위 확대...흡피서 19일까지 접수

기아차가 정규채용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인 ‘인턴K’ 참여자를 모집한다.

‘인턴K’ 프로그램은 나이에 상관 없이 실무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정규채용과 연계해 운영되며 지원 대상자를 졸업자까지 확대한 게 특징이다.

‘인턴K’는 일반과 글로벌 2개 전형으로 나뉘며 일반 전형의 경우 ▲생산운영 ▲생산기술 ▲구매 ▲품질 ▲상품 등 5개 부문, 글로벌 전형은 ▲글로벌 사업관리 ▲글로벌 고객경험 부문의 인턴사원을 모집한다.

최종 선발된 인턴 사원들은 올해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약 5주간의 현업 실습에 투입, 실무 능력을 익히고 개별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잠재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친다. 실습 우수자들에게는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임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지원자는 오는 19일 오후 5시까지 기



아차 채용 홈페이지(career.kia.com)로 접수하면 된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www.aroma-life.co.kr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옥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아모리이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 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대표전화 1588-2219